

초등학교 성교육

“내 고추가 커졌어요!”

올바른 성문화는 올바른 성교육이 낳는다.

좋은 성교육이란 교육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성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겪은 이야기를 소개하여 진정 필요한 성교육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심연식

대전대흥초등학교 양호
교사, 2001년 교육부 성
교육 지침서 전달 강사

교직생활과 더불어 시작된 나의 성교육은 20여 년이 되어간다. 처음 교직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5학년 여자아이가 찾아왔다. 선생님 우리 반 00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데 몸이 굉장히 뚱뚱해져 있어요. 담임선생님과 의논한 후 오후에 가정방문을 했다. 아뵐사, 거의 만삭의 몸...

그 충격으로 성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으며 그때부터 나는 남녀 한 학급에서 성교육을 시작해 지금까지 변태라 소리를 들으면서 하고 있으며 이젠 본격적인 교육부의 뒷받침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으니 아이들 표현을 빌리자면 본격적인 변태 선생님인지도 모른다.

5학년 성교육 7차 '대중매체에 의한 성 정보 대처' 시간이었다. 미용실에 있는 거의 누드의 상태로 아이들 표현대로 섹시한 표정을 하고 있는 광고를 보여주자 한 남학생이 질문을 했다. “선생님 그 그림을 보니까 내 고추가 커져요 왜 그래요?”

무지무지 궁금해요. 다른 아이들, 나도 궁금한데, 나도, 나도, 나도. 그리고 웃음바다.

그렇지요. 궁금하지요. 용감한 질문을 했어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세월은 아주 빨리 흘러가요. 몇 년이 흐른 뒤에 아빠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엄마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학생들도 알고 있어야 해요. 흉을 본다거나 이상스럽게 생각해서는 안돼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연현상에 대해 비슷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자연의 일부이니까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정확하게 알아두지 못하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늘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듣게 되는 것들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고 다음에 질문을 할 때 바른 답을 할 수 있었으면 해요.

>> 몸의 소중함 알려주니 흐뭇한 표정들

남학생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지금까지 한번도 자기의 성기가 커지지 않았던 사람 있나요? 손들어 보세요. 모두들 두리번 두리번 까르르, 에이 창피하게. 왁자지껄, 변태... 손올 들어 얼굴을 가리는 여학생.

자, 손드는 사람이 없네요? 손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찌나 선생님은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남자의 성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 또는 장난삼아 만졌을 때, 야한 그림을 보았을 때, 야한 상상을 했을 때 똥똥 커지

거의 누드의 상태로 아이들
표현대로 색시한 표정을 하고 있는
광고를 보여주자 한 남학생이 질문을
했다. “선생님 그 그림을 보니까
내 고추가 커져요 왜 그래요?”



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
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자의 성기가 커지는 것은 나중에 결혼하
여 꼭 결혼을 하여 아기를 만들고 싶을 때 아빠
의 아기씨를 전해 주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준
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물총을 갖고
놀 때 물을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쏘기 위해
는 물총의 방아쇠를 손목에 힘을 주어 힘껏 잡
아당겨야 물이 한꺼번에 밀려나가게 되지요?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힘이 있어야만 아빠의 몸속에 저장되어 있
던 아기씨가 엄마의 몸속으로 전해져서 엄마
몸에 있는 아기씨와 만나 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죠. 아빠도 엄마의 몸속에 아기씨를
전해줄 때는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성의 성기도 어
렸을 때부터 아기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
습니다. 늘 소중하고 깨끗하게 해야 나중에 나
의 아기를 예쁘게 만들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엄마의 몸속에 아기씨를 전할 때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모두 소중하지만 특히
생명을 만드는 성기는 여러분이 남자로서 여
자로서 존재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이어줄 소중한 보물입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보여주지도 말아야 하고
만지지도 않아야 해요. 우리 5학년 0반 남자어
린이들은 모두가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
네요. 모두 파이팅. 여학생들도 박수로 축하를
해줍니다.

>> 눈높이 맞춘 성교육 절실

웃음이 가득한 얼굴들 오늘도 하나의 궁금중
이 풀렸기를 기대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낀다.
완전한 지도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변수가
있고 궁금증은 해결해줘야 살아 있는 교육이
되는 것인데.

아이들의 수준은 너무나 차이가 심하고, 표
현은 하지 않지만 이미 정보매체를 통한 어두
운 성을 접한 그들의 성에 대한 바른 안목을 어
떻게 접근하여 교정시켜 줘야 하는지가 초등
학교에 있어 성교육의 과제라 생각 된다.

수시로 찾아와 질문을 던지는 아이들의 궁
금증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마도 부모님들은
모를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이 제대로 된 성교
육을 받을 때 그들의 사회에서 또한 교사가 될
수 있으니 수시로 찾아와 질문하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답해준다. 이제 성교육은 양성평
등교육과 더불어 계속 되어야 한다.